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모색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워크숍」 개최

외교부는 6.25(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는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관련 국내외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주한외교단, APEC 회원국 정부 인사 등이 참여하였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1989년 출범한 지역 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중

동 워크숍은 외교부가 올해 APEC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생산 APEC 역내 협력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해조류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평가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해조류는 아태 지역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성장 속도와 높은 탄소 포집 능력,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 외교부는 해조류 기반 바이오에너지 잠재성이 큰 아태 지역 내 관련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역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APEC 하반기 프로젝트 기금을 신청하여 올해 1~12월 △사전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4월) △APEC 전문가 워크숍 개최(6월) △정책 권고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도출(12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중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업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글로벌 해조류 기반 바이오에너지 현황과 잠재성, 연구 및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필리핀, 대만 등 APEC 회원국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과 산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역내 국가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원료 및 탄소포집원으로써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기반 에너지 자립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해조류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뛰어난 양식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넓은 해역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APEC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지식공유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역량을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아태 지역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역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붙임 1. 워크숍 프로그램
- 2. 행사 사진. 끝.

담당 부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	책임자	팀장	조은정 (02-2100-7859)
		담당자	연구원	황소은 (02-2100-8183)